

---

## VI. 결론

---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요인이 증폭됨에 따라 이와 같은 불안감이 경제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함.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구들이 느끼는 은퇴 및 고령화에 대한 불안감은 무척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것이 일정부분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자산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부동산위주의 자산보유로 인한 유동성 문제, 수익성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이들 가구의 은퇴자산 준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
  
- 은퇴 이후의 소비는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고 이에 따른 은퇴 후 필요소득과 자산보유 결정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은퇴 소비와 자산행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최근 은퇴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우리에게 은퇴와 소비, 자산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갭을 메우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음.
  - 빠른 고령화의 진행과 은퇴가 가져오는 불안감의 확산이 이와 같은 은퇴 후 소비 및 자산행태의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엄밀한 연구는 향후 은퇴 시장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은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계의 소비 및 자산보유 행태를 중·고령자 가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음.

○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기술분석은 물론 패널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분석 기법의 적용을 통해 우리나라 은퇴가구의 경제행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음.

■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동일가구의 은퇴 전후 행태 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예견된 은퇴가 가계의 소비지출이나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은퇴기간이 지속될 경우 또는 은퇴가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작용할 경우 이와 같은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함.

○ 기술분석과 단순 은퇴터미를 이용한 소비비목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식비와 교육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낸 반면, 보건의료비에 있어서는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만 예견된 은퇴의 경우 그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웠음.

– 한편,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다른 세대와 달리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세대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나타나 이들 세대의 은퇴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지출을 보다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소득 및 자산계층별로 살펴볼 때 소득차이로 인한 소비변화의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자산계층에 따라 소비지출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저자산 계층의 경우에 예상치 못한 은퇴가 이루어질 경우 다른 계층과 달리 전반적인 소비감소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이들 가계의 경우 은퇴가 경제적 충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은퇴 후 소비가 보다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은퇴로 인해 소비가 보다 불안정해진다고 하는 실증근거를 찾기 어려웠으나 소비비목별로 볼 때 예상치 못한 은퇴가 있을 때 보건의료비의 경우 은퇴 후 소비가 은퇴 전에 비해 보다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함.

– 보건의료비의 경우 은퇴 후 지출이 늘어나고 소비의 변동성도 보다 확대됨에 따라 은퇴가계의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함.

- 한편, 은퇴자와 비은퇴자들 간의 분배상태를 비교해 보면 은퇴자들의 자산 분배상태가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자산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됨.
  - 은퇴 이후 분배상황의 악화는 취약 은퇴계층의 빈곤문제가 사회문제화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이와 같은 격차를 가져오는 요인은 주로 금융자산 분배 악화에 기인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계층들의 자산형성 및 근로개선이 은퇴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은퇴 전후로 자산수준과 자산구성측면에서 은퇴가구의 자산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있었다고 하는 실증근거를 찾기 어려웠으나 이러한 것은 단기적인 효과 내지 은퇴가 예상되었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횡단면 자료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효과가 은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함.
  - 전체 보유자산, 실물자산, 금융자산, 부채, 순자산 측면에서 은퇴 전후 유의미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음.
  - 예상치 못한 은퇴의 경우 은퇴자산의 구성비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자산 중 실물자산의 감소와 금융자산의 증가로 나타나 전체 자산의 변화가 없다면 은퇴가구들은 소득원이 고갈되어 실물자산을 일정부분 유동화 할 가능성을 시사함.
  
- 은퇴 관련 불확실성 내지 위험 중 특히 건강에 대한 우려가 가계의 자산보유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가계는 건강에 대한 위험이 클수록 위험자산 보유를 기피하는 예비적 자산보유행태(precautionary portfolio behavior)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함.
  -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고수익 자산 보유를 기피하고 대부분의 자산을 저수익성 안전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적정한 소득흐름 창출기회를 상실하

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한편 건강보험 가입은 이와 같은 예비적 자산보유 행태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이와 같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동태적으로 볼 때 은퇴에 따른 효과는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를 통해 은퇴의 경제적 효과는 장·단기 상이하여 은퇴 경과시기에 따라 일반적인 효과가 상이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기간이 확장된 장기의 중·고령자 패널자료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소비지출을 위해 은퇴자산의 처분은 은퇴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은퇴 후 보건의료비 지출의 확대에 의해 은퇴 후 장기간 시간이 흐를 경우 감소하던 부채수준도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은퇴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은퇴의 효과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가계들의 은퇴에 대한 예상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본 연구결과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업권 간 그리고 보험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향후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 따른 소비자의 금융니즈를 반영한 선도적 상품개발 및 시장형성이 중요함을 시사함.

- 본 연구에서는 은퇴 전후로 한 가계의 경제행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가구들의 소비 및 자산보유, 부의 저축(dis-saving) 패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 무엇보다도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베이비부머 중 취약계층의 대규모 은퇴가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들 계층의 경우 자

산형성 및 근로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은퇴 후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흐름마련이  
긴요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에 대한 가입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  
요가 있으며 아울러 현재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자산의 유동화 수단이 가  
보다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성도 제기됨.
- 빠른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가계의 은퇴 후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무  
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은퇴가구들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